

#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개소 1주년 기념 세미나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개소 1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 모색

| 기사/사진 :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한** 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김성이)와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정문호)는 지난 7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개소 1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행사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개소 1년을 맞아 시범사업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살펴보고, 급속한 복지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전달체계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계기로서 마련되었다.

1부에서는 축하공연과 2부 기념식, 3부 기념세미나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념축하공연은 가수 안치환씨가 참여해 축하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2부 기념식에서는 김성이 사회복지사협회장의 개회사 및 강기정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졌다. 3부 기념 세미나에서는 이해경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위원장의 [참여정부의 빈부격차 시정정책과 사회복지전달체계개편 방향]에 대한 기조강연이 있었다.

이어 세미나 좌장이신 백종만 교수의 진행으로 이태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의「지방행정 환경변화와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이라는 주제발표와, 박경숙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년 평가와 향후 추진과제」라는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후 토론자로 참석한 문창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윤찬영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허준주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 구철수 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도현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분석해보고,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향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실제 복지서비스의 주체이자 대상인 국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전달체계 개편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주제 발표를 하고 있는 이태수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과 백종만 전북대학교 교수의 모습. 그리고 아래는 이날 행사에 전시된 전시물.